

올해 전남 초등학교사 100명 이상 수급 차질

588명 선발에 497명 합격...1차에서만 91명 부족 89명 무더기 과락...삼·오지·특수교사 '미달사태'

전남 초등학교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100명 이상 뽑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학년도 전남도 공립 초등학교사 임용시험 결과, 선발인원(588명)의 84.5%인 497명만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1차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91명 부족한 것이다. 이들이 2차 시험인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면접 등을 거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남 초등 일반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612명으로 선발인원(588명)보다 24

명 많은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1차 필기시험인 교육과정, 교직논술 과목에서 89명이 '과목당 40점'을 넘지 못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교대가 아닌 다른 지역 교대 출신에서 응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6명은 한국사 검정시험 3급이상 자격기준에 미달했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장애분야와 삼·오지 등 지역제한 교사는 아예 미달사태를 보였다. 장애인은 39명 모집에 2명만 지원했고, 도서II와 시·군II는 각각 0.50대 1, 0.63대 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초등교사 총선발인원 650명 중 634명이 지원,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치원교사 6.14대 1, 특수유치원교사 5.50대 1, 특수초등학교사 7.67대 1과 대조적이다.

초등학교사 수급 차질은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자, 이를 채우기 위해 선발인원을 당달아 늘리면서 경쟁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오는 2월말 전남지역 명퇴자(잠정)는 초등 214명, 중등 336명, 사립 108명 등 모두 658명으로 2010년 218명, 2012년 244명, 2014년 345명에 비해 2~3배 폭증했다.

삼·오지분야 응시자 미달 등 농어촌 근무 기피현상도 한 몫했다. 이는 전남과 상황이 비슷한 충북·경남·전북·강원 등 농

어촌지역이 많은 도 단위 응시자가 선발인원을 밑돈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도시인 광주는 초등 일반교사 경쟁률이 지난해 2.3대 1에서 올해 2.6대 1로 증가했다.

초등교원 수급처는 교육대가 유일함에도 당국이 '명퇴 바람'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도 수급 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않게 1차 필기시험에서 100명 가까이 과락이 나왔다"며 "15%가량 예비인력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거나 명퇴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이들 얼굴이 왜 밝나 했더니... 여기는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공동육아 참나무어린이집 원생들이 22일 오후 선생님과 함께 시장놀이를 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이다. 현재 전국에는 200개 남짓의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연남뉴스

광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에 보낸 글 논란

교육이 아닌 보육만 할 것 “나쁜 행동 관여 안할테니” 부모님이 훈계 해 주세요

“자질 의심스럽다” 비난 “오죽 했으면...” 반응도

인천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나쁜 버릇이나 식습관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부모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1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공지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광주·전남 엄마들의 모임'(가명) 카페에 올렸다.

A씨가 담임교사로부터 받았다는 공지글엔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혼자 결정했다. 남은 기간은 교육이 아닌 보육만 할 예정이다. 전보다 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땀 흘려서 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테니, 대신 아이들을 훈계해 달라. 아이들의 버릇이나 식습관 등은 일체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그 또한 부모님께서 하셨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A씨는 게시글에서 "선생님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집을 옮기면 그만인데, 다른 학부모에게도 그럴까봐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 글을 접한 상당수 부모는 '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무책임하다', '피해입기 싫으니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뒷날 귀찮으니 부모가 알아서 해라'는 소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반면 일부는 '오죽 했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일로 교사로서 자부심이 떨어져 속상해서 그런 것', '교사도 사람인데 힘들 것이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전 나주시사 전 직원 2명 또 뇌물수수 체포

한전 나주시사 전 직원 2명이 또 다시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한전 직원만 5명에 이른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1일 공사 계약 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A씨 등 한전 직원 2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전 나주시사 직원들과 계약 업체간 뇌물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형국으로, 일부 직원의 개인 비리로 치부했던 한전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한전 공사 계약 입찰에 참여했던 전기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업체 안팎에서 제기됐던 계약 시스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한전 나주시사 이외 다른 지역의 공사 계약서 등을 제공받아 비리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법원의 선처

광주고법, 보안법 위반 대학생 장래 감안 선고 유예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의 장래를 감안,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6·15 정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대학 신입생 때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

고 큰 역할을 성실히 하고 제대해 복학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자격이 없어 결국 3~4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뒤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언던 특혜 해경간부 사건 광주 법원 관할 아니다” 판결

검찰, 대법원 상고기로

구단업체 '언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간부들에 대한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광주 법원 관할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인어서 특혜 제공 혐의에 대한 실제적 진술 및 책임을 묻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49) 해경 수색과장, 재판대리계 나모(43) 경감 사건과 관련, "광주지법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고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사건을 기소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표준은 '범죄지(결과 발생지 포함), 피고인의 주소·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현재지인데, 어느 것 하나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지점인 진도군이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지만 본원인 광주지법은 지원의 관할을 포함한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용 안낸 렌터카 회수하다 허적!...훔친 지갑 수두룩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차량을 대여업체 직원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사람의 지갑 등으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한 20대 절도범이 탈피.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최모(70)씨의 집에서 금 목걸이와 현금 등 52만 원 상당의 금품

을 훔치는 등 지난 14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8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

○...김씨가 범행을 위해 빌린 렌터카의 대여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렌터카 업체는 내장된 GPS를 추적해 직접 회수에 나섰는데, 당시 차량 안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지갑 등 절도품 40개가 보관돼 있어 이를 수습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검거.

/*박기용기자 pboxe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목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 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5층 상가매매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 ②주차장 고정완비
-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업중심지역

- ①1층, 2층 3층, 4층, 4층
- ②월수익 1,020만
-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②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④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⑥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⑦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 ⑧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다세대빌라

- ① 남구 지석동 (토㎡,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공 장

- ①광산구 월전동 (토지 4162㎡, 건물 3281㎡) 감평가 30억, 최저가 16억
- ②북구 월송동 (건 1746㎡) 감평가 25억, 최저가 11억
- ③광산구 지족동 (토 2073㎡, 건물 1187㎡) 감평가 16억, 최저가 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